https://doi.org/10.18856/jpn.2017.23.4.011

차이와 공존하기

—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s *Encountering Difference*

최영석*

1. 공존에의 요청
2.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
3. 디아스포라와 고향
4. *Encountering Difference*

국문요약

로빈 코헨과 올리비아 쉐링험의 *Encountering Difference*는 국가, 민족, 종교 사이의 갈등을 지양하고 차이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기존 정체성에서의 탈주를 가능하게 했지만, 귀속성과 회귀성이라는 한계도 지녔다. 저자들은 크레올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디아스포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의 감수성을 내세우는 크레올화는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디아스포라와 달리 창조적인 변형을 낳는다. 갈등하는 정체성들을 단순히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며 새로운 대안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를 이론적 모색의 중심에 놓을 때 정체성 갈등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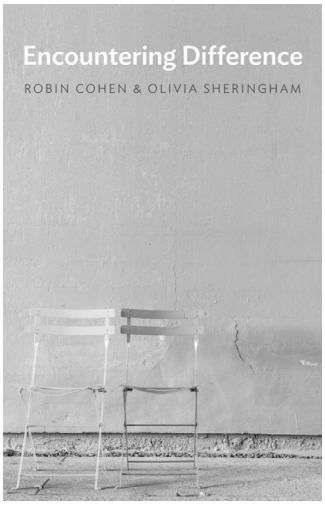
(주제어: 차이, 공존, 사회 정체성, 디아스포라, 크레올화)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www.kci.go.kr

1. 공존에의 요청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국가, 민족, 종교, 인종의 사이에 놓인 국경과 장벽, 경계가 해체되거나 최소한 약화되리라는 기대는 최소한 2017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전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근대화, 도시화가 끼치는 영향이 세부 단위의 집단과 그 습속에 녹아들어 일종의 보편주의적 합의가 출현하리라는 전망도, 근대적, 서구적, 유럽중심주의적 질서가 강요한 국가 체제와 국민주의(nationalism)가 내부의 단일성 약화와 기존 범주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간섭, 탈구로 인해 해체되면서 근대성의 질곡에서 놓여날 가능성을 보여주리라는 희망도 분명한 실체로 전환되어 다가오지는 않는다. 한때 다민족, 다종교, 다정체성 사회의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던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을 방치해 테러와 소요를 방치한다는 불만을 낳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자를 영구히 주변화시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노출되면서 점차 여러 국가의 주요 어젠다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슬람 국가(IS)가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무슬림 전사들을 모집하고 종교 절대주의를 수출, 홍보한 행위는 급속하게 발달한 각종 미디어와 네트워크가 기존의 구획과 질서를 교란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랜 전통과 절대적 가치를 내세우는 폐쇄적 정체성에 봉사한 사례이기도 하다.



www.kci.go.kr

널리 알려진 디아스포라 연구자인 로빈 코헨이 올리비아 쉐링험과 함께 2016년에 내놓은 *Encountering Difference*[1]는 바로 이 질문, '우리는 차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가'를 중심 테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문화연구자 스튜어트 홀은 21세기의 핵심 이슈를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 How are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backgrounds, with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religious beliefs, produced by different and highly uneven histories, but who find themselves either directly connected because they've got to make a life together in the same place, or digitally connected because they occupy the same symbolic worlds - how are they to make some sort of common life together without retreating into warring tribes, eating one another, or insisting that other people must look exactly like you, behave exactly like you, think exactly like you?[2]

>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종교를 가지고 아주 다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직접 뭉치거나, 동일한 상징 세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디지털 기기로 소통하면서 제 정체성을 찾은 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부족들로 퇴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살아나갈 방법이 있을까?(필자 옮김)

저자들은 스튜어트 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발칸 반도의 코소보와 세르비아, 르완다의 후투 족과 투치 족, 레바논의 기독교인과 무슬림, 중동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스리랑카의 타밀 족과 싱할라 족, 북아일랜드의 개신교계와 가톨릭계, 시리아의 알

1)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2) Stuart Hall, "Living with difference: Stuart Hall in conversation with Bill Schwarz", *Soundings: A Journal of Politics and Culture* 37, 2007, pp.150~151.

www.kci.go.kr

라위파와 시아파 및 수니파,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인 등 세계 각국에서 민족, 종교, 언어, 전통의 '차이'가 낳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연구 방향은 이 차이들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갈등하며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다. 다양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융합하는지에, 그리고 더 긍정적인 이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왜 중요한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3)]

복잡하고 중층적인 여러 과정을 거쳐 특정한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한 어떤 집단이, 접촉과 변화를 거치면서 동일시와 배타성을 내세우거나 순수성과 적개심을 표면화하지 않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일견 과도한 유토피아적, 코스모폴리탄적인 발상으로 보이는 이 문제 의식은 그 실천성에 대한 의심의 강도만큼이나 충분한 값어치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든 상징적으로든, 단일한 영토를 점유하는 균질한 정체성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거나 최소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상황이 대립과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파국을 낳아 유혈과 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존의 체계에서 탈영토화하는 수많은 정체성들을 이름 붙여 불러내고 인정하고 생존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논하는 공존의 가능성은 그 때문에 소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

저자들은 사회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와

3)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p.1-3.

www.kci.go.kr

크레올화, 두 주요 개념에 기댄다. 90년대 이후 학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해 이제는 대중들의 입에도 쉽게 오르내리게 된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간과 실제 거주지 간의 불일치에 근거한다. 고전적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프리카인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아스포라의 핵심 용어는 추방, 망명, 소외, 그리고 (불가능한) 귀환이다. 아프리카계의 강제 이주를 중심으로 한 초기 디아스포라 연구는 주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희생된 집단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2000년대 이후로는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한다. 단순한 가해자/희생자의 도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이주, 정착, 교섭, 연결, 정체성의 혼성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노동 계약을 맺고 신세계로 이주한 인도계 노동자들은 제국의 폭력과 속박에 시달린 희생자들이기도 하지만, 노예제 폐지 이후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동원된 노동력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 대서양을 건넌 아일랜드계 디아스포라도 자발성의 유무로 규정되기는 어려워보인다. 고전적 디아스포라의 원형을 이루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귀환의 꿈을 성취함으로써 또다른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를 대규모로 야기시켰다. 탈식민 이후 제국주의의 협력자로 간주되어 거주지에서 쫓겨나거나 현지인들과 갈등하는 디아스포라 집단들, 나아가 제국주의 본국 출신의 정착민들이 구성한 집단들은 어느 정도까지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펀드나 디아스포라의 연결망을 통해 접촉하고 이동하는 중국계 자본의 예를 보더라도, 디아스포라는 단순한 고전적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종다양한 사태들을 포괄하는 역사적, 사회적, 이론적 용광로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고전적 디아스포라의 희생/가해, 원주지/거주지, 모국/정주국이라는

www.kci.go.kr

이분법적 도식의 단순성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디아스포라 이론의 한계와 가능성은 이 기본 도식에 이미 잠재해 있다. 디아스포라들은 어디를 가나 '진정한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다. 심지어 고국에 귀환했을 때조차 그렇다. 구소련 출신의 이스라엘 귀환자들처럼, 디아스포라의 이전 거주지가 갖는 인종, 문화, 언어, 경제적 특성에 따라 폐쇄적인 소규모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프리카계나 유대인 등의 귀환 운동들이 '고향'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에게 문화적, 군사적으로 재차 제국주의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빈 땅'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향의 부재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정체성이 언제나 이동과 접촉에 따른 재동일화와 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러 준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기존의 소속, 정체성, 범주, 정의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포스트 담론들의 주요한 거주처가 되었다. 디아스포라와 포스트모던한 삶의 양식은 거의 동일어처럼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향한 열망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포스트 담론들은 국가, 민족, 젠더 등의 기존 구획이 초월적 현존으로 자리잡는 것을 경계하고 적대시한다. 언어적 실천과 각종 의례들의 실행은 실제로는 수많은 균열을 내장하고 있는 동일성의 형식들을 재구축하고 실존시켜 현실의 권력으로 이양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이야말로 초월적 현존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정통 유대교적 해석에 따르면 '귀환'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신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신의 징벌로 인해 발생한 이산은 신의 손길에 의해서만 거둬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틀에 이스라엘을 가두려는 시도는 반유대적이다. 굳이 유대교의 해석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시오니즘 운동은 비물질적 담론이 물질적 권력을 구축하고 그 권력을 실제의 영토와

www.kci.go.kr

인구에 행사한 좋은 표본이다. 유대인의 귀환 운동은 추상적 수준의 지향이었던 알리야(aliya: 상승, 유대교 회당으로 들어감,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를 현실 차원의 추방과 학살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고향이 지닌 회귀성, 귀속성, 동일성, 정체성 고착화는 포스트 담론들과 디아스포라 담론의 연대를 어렵게 한다.

고향과 타향의 이중 구조는 디아스포라 이론의 확장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품고 있다. 지난 2-30년 동안 디아스포라 담론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디아스포라가 영토와 국가, 민족이나 인종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그 바깥으로의 탈출 지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담론들의 상상 체계를 계속 뒤흔들거나 완결짓지 못하게 하는 잔여였던 셈이다. 하지만 반대로 디아스포라가 운동으로서 현실화되면 국민국가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디아스포라를 개념화해 이론화할 때의 난점도 여기에 있었다. 물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장소가 디아스포라 개념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 개념의 이론적 잠재력은 우리가 공간, 장소, 문화의 동일성isomorphism과 포스트모던적 삶의 뿌리없음 양자에 맞서는 동시에, 사회적 소속의 문제를 귀속성과 이동성 모두의 관점에서 다루도록"[4] 해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는 완전한 탈주를 내세우며 이론화와 역사적 접근을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도 아니며, 고립된 정체성을 강요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은 위에서 말한 개념 내부의 자기 충돌로 인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디아스포라

4) 이진형, 「디아스포라 시대의 삶, 사유, 상상력」, 임경규 외, 『디아스포라 지형학』, 앨피, 2016, 10쪽.

www.kci.go.kr

연구들은 국경을 넘어선 거대 국민주의적(Ultra-nationalist) 기획의 일부로 기능하면서 정체성의 재확인에 기여하거나, 복잡한 이론적 탐구에 치중하면서 역사적 실천의 일부인 디아스포라를 오용해 왔다. 따라서 '차이와의 공존'이라는 주제 의식을 진전시키기 위해 코헨과 쉐링험은 크레올화 개념을 적극 수용한다.

카리브해 사회의 인종적, 언어적 범주를 가리키는 의미로 좁게 사용되던 크레올은 최근 들어 더 넓은 이론적 범주로 확장되었다. 크레올화는 서로 다른 언어, 습속, 문화, 정체성이 혼합, 융합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크레올화가 단순한 융합과 구분되는 것은 첫째, 크레올화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배태되어 깊은 역사적 울림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크레올화 개념은 맥락 없이 아무 대상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크레올화의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통해 경험되고 확장되면서 그 이론적 의미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크레올화는 융합에서 멈추지 않고 기존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외부의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창조에 이른다. 예컨대 카리브해 지역의 크레올어는 문화 접변으로 인해 서로 짧은 의사소통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편화된 언어 요소들에 의지하는 피진과는 구분된다. 크레올어는 언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한 언어로서 새로이 탄생한 언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크레올화의 창조적 성격은 언어만이 아니라 춤, 축제, 음식, 종교 등 문화 전반의 문화 융합과 창조로 이어진다. 셋째, 크레올화는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시공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에서 벗어나 복잡한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현장인 현대 국가들과 대도시를 분석하기에 좋은 도구가 된다.

*Encountering Difference*의 저자들은 크레올화의 이론적 층위를 두텁게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존의 폭넓은 이론적 발전을

www.kci.go.kr

수용하면서, 문화 간의 접촉 지점을 구체적으로 탐사하고 음악과 카니발 등의 문화 양상들을 관찰해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창출한, 수많은 차이들과의 공존 양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다양한 정체성들의 목소리를 표출시키고 공고한 정체성 양식들을 해체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이들은 디아스포라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해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 즉 이 정체성들이 동일자로의 귀속이 아닌, 차이를 내부에 품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3. 디아스포라와 고향

*Encountering Difference*이 가진 의의와 문제성이 공히 디아스포라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디아스포라 연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이 책의 공동저자 로빈 코헨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남아프리카 출신인 코헨은 1974년에 나이지리아의 노동과 정치 문제를 다룬 박사 논문을 썼고,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활동과 역사, 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 활동을 해 왔다. 코헨은 제임스 클리포드, 윌리엄 샤프란, 폴 길로이, 카치그 툴뢰리안 등과 함께 현대 디아스포라 연구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들을 훑어보기로 한다면 그의 저작을 지나치기가 불가능하다.

코헨의 대표작은 2008년에 출판된 『글로벌 디아스포라』[5]이다. 이 책

5)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속원, 2016. (원서는 Robin Cohen, *Grobal Diaspora*, Routledge, 2008.)

www.kci.go.kr

은 디아스포라를 유형별로 분류, 정리하면서 디아스포라 논의의 개괄서이자 참고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계 연구 성과를 단계별로 나누고, 디아스포라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내다보는 작업과 함께,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의 공통 특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막스 베버의 '이념형' 개념에 기대어 디아스포라를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나누어 디아스포라를 이론화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 희생자, 노동, 제국, 무역, 탈영토화 디아스포라가 그 다섯 가지 이념형이다. 이 책의 본문은 이 다섯 가지 이념형을 규정하고, 그 분류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설명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디아스포라 논의들을 포괄하면서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을 탐사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몇몇 연구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코헨은 디아스포라 '이론'을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막스 베버의 이념형에 기대어 대상을 분류하는 기본 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사회학자이며,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한 저작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디아스포라 개념을 이론적으로 예각화하여 여타 사회 비판 이론에 적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디아스포라로 규정되는 대상과 디아스포라가 낳은 사태들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 역사적 층위를 따져보는 것이 그의 일차적 관심사이다. 따라서 코헨의 저작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그의 저작이 사회 질서의 전복이나 기존 권력의 해체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은 코헨 입장에서 저작의 성격과 엇나가는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그의 저작이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디아

www.kci.go.kr

스포라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은 중요하다. 『글로벌 디아스포라』가 성실하게 디아스포라 논의를 망라한 까닭에 많은 이론들이 디아스포라 개념의 기본 골격을 그에게서 빌려오고 있으며 이론의 비판 지점이 그의 저작에서 출발하는 사례가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Encountering Difference*의 입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디아스포라 논의의 변화 지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디아스포라 정의의 임의성이다. 코헨은 샤프란이 제시한 디아스포라의 공통 특성을 조금 수정해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1. 본래의 고국에서 둘 이상의 타 지역으로 흩어짐. 종종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
2. 일자리나 무역을 위해, 혹은 식민주의의 야심 때문에 고국을 확장. 확장된 고국은 대체된 고국, 혹은 추가된 고국.
3. 고국에 대한 집단 기억과 신화 간직-고국의 위치, 역사, 고통, 성취를 모두 포함.
4. 실제 혹은 상상 속의 본향을 이상화. 고국의 존속, 복구, 안전, 번영을 위해, 심지어 고국의 창출을 위해 집단적으로 헌신.
5. 빈번한 귀국 운동.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고국과의 간접적 관계, 간헐적인 방문 정도로 만족하지만, 귀국 운동은 집단의 찬동을 수반.
6. 다른 집단과의 확연한 구별, 공통된 역사, 공통된 문화와 종교의 전승, 공통된 운명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한 집단의식이 오랜 기간 지속.
7. 거주국과의 불편한 관계-거주국에 흡수되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재앙이 덮칠 수 있음을 시사.
8.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족 구성원들과의 공감과 공동책임에 대한 의식.
9. 다원주의에 대한 거주극의 관용으로 특별히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갈 가능성 내재.[6]

6)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속원, 2016, 44쪽.

www.kci.go.kr

이 자세한 분류는 디아스포라 개념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 지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 연구자 케빈 케니는 “디아스포라는 듣기에도 그럴듯하고 발음도 멋져서 별 실체도 없는 주장을 포장하기에 딱 좋다”고 말한 바가 있다.[7] 디아스포라 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순히 소수 민족이나 종족으로 불리던 대부분의 집단이 디아스포라임을 주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강제 추방, 고난, 회귀에의 열망이라는 디아스포라의 고전적 정의에 기댄다면 사실상 디아스포라로 규정될 수 있는 집단의 수는 매우 적다.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아프리카계 집단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마저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디아스포라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세부가 돌출된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이주를 강제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고향으로의 회귀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이다. 물론 디아스포라 개념이 온갖 종류의 이주와 그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세계상을 포괄하게 된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이같은 개념적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다. 그러나 문제는 개념의 제한 없이는 개념의 소구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1장에서 코헨은 디아스포라 연구를 네 단계로 정리한다. 첫 번째 단계는 디아스포라의 전형적 사례들에 대한 연구 단계이다. 유대인, 아프리카,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등은 트라우마적 대격변 이후의 추방, 고난, 귀환이라는 고전적 정식에 따라 디아스포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디아스포라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민족국가의 바깥에 있는 이들, 예를 들어 추방자, 망명자, 무국적자, 이민자, 소수민족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은유적 호칭'이

7)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앨피, 2016, 25쪽.

www.kci.go.kr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디아스포라 연구는 포스트모던 이론과 결합되어 본국-거주국, 본국-디아스포라 등이 함축하는 본질주의, 고정된 중심성을 해체하려는 경향을 띤다. 디아스포라 개념을 국민국가의 국민 개념과 대립하는 혹은 이를 해체하는 개념으로 정교화하는 이론적 작업들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코헨은 현재는 네 번째 단계인 '통합단계'라고 주장한다. 탈영토화, 탈민족주의, 탈식민주의, 혼종성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더니티 연구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성장, 대중화시켰고, 디아스포라 개념의 이론적 잠재성을 확장시켰지만 반대로 디아스포라 개념 자체마저 해체할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연구는 일종의 변증법적 통합 작업을 통해 고향-타향의 기본 축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디아스포라 개념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아스포라 연구자 브루베이커는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 The 'diaspora' diaspora」라는 논문에서 코헨이 정리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경계한다. 그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디아스포라 논의들이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 개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즉 '흩뿌리다, 흩어지다/분해, 해체'라는 디아스포라의 본래 어원처럼, 디아스포라 '개념'은 여기저기 산개되어 그 의미론적인 실체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 현상은 디아스포라에 기반한 조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 diaspora는 추상 명사 diasporicity, diasporism, 어떤 과정을 뜻하는 diasporization, de-diasporization, re-diasporization, 연구 분야로서의 diasporology, diasporitics, 나아가 논쟁 시의 특정한 입장을 뜻하는 diasporist,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시민권, 디아스포라적인 의식,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 디아스포라적인 상상, 디아스포라적인 민족주의,

www.kci.go.kr

디아스포라적인 네트워크, 디아스포라적인 문화, 디아스포라적인 종교, 디아스포라적인 자아 등등의 현란한 용어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diasporic이나 diasporan 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이다.

디아스포라의 확장은 그만큼 개념의 일관성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소위 포스트 담론들이 디아스포라를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디아스포라 개념을 국가, 민족, 백인, 남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세계라는 고정된 중심들의 대타항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디아스포라 서사는 목적론적 서사(teleolgical narrative)에 저항하는 서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이다.[8)]

지난 2-30년 동안 디아스포라 담론은 저항 서사로서의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생산력으로 인해 놀랍도록 성장하였다. 혼종성, 이중 의식, 이중 언어, 정체성, 사이보그, 근본주의, 계급, 서발턴, 파시즘, 젠더, 테러리즘, 식민주의 등 온갖 다양하고 흥미로운 논의들과 디아스포라 논의는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 것처럼 보인다.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언제나 고향의 부재로 인해 생성된다. 선험적 귀속성을 거부하는 포스트 담론들은 디아스포라 서사라는 육체를 빌려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스타트랙〉,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프로메테우스〉, 〈허〉 등 우주 종족 혹은 인공지능/사이보그의 정체성을 주요 테마로 하는 영화들의 서사 분석에서부터 카리브해와 아프리카계 작가들의 이주민 문학 연구, 식민지 작가들의 이중 언어 의식 연구에 이르기까지 디아스포라 담론은 그 영향력을 넓혀 왔다. 디아스포라 서사는 이론과 서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지층 위에서 행복하게 결합하는 순간을 계속 보장해 줄 것인가?

---

8) Roger Brubaker, "The diaspora's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p.1-19.

www.kci.go.kr

그러나 브루베이커의 말을 빌리면, 디아스포라도 제 나름의 목적론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덕목 중 하나는 목적론적, 민족국가적으로 이민과 동화를 이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으나, 디아스포라 논의는 휴면 중인(스스로 디아스포라라고 자임하지 않는)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을 깨우고, 많은 민족주의 운동처럼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본질주의적 가정을 되풀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한 목적론에서 다른 목적론으로 옮겨가는 것이 부질없다고 지적하면서 디아스포라를 한정된 실체가 아니라 표현, 입장, 주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9]

플로야 안시아스는 대안 이론으로서의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이런 근본적 한계 지점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디아스포라 개념은 종족과 민족의 자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고향이라는 추상적, 원시적 속박은 계급, 젠더, 인종 등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대하는 결속을 방해한다. 코헨의 유형론은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지향을 고착화시킬 뿐, 이 난점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결국 현재의 디아스포라 논의는 국민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디아스포라는 소속과 근원으로 회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자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버지라는 '부모'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0]

『Encounter Difference』는 『글로벌 디아스포라』에서 코헨이 분류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네 번째 단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응전이다. 코헨과 쉐링험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 성과가 가지는 한계 지점을 정

9) Roger Brubaker, "The diaspora's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p.1-19.
10) Floya Anthias, "Evaluating diaspora: beyond ethnicity", *Sociology* 32(3), 1998, p.567.

www.kci.go.kr

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포라 연구의 팽창은 세계의 이주와 그로 인한 변화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게 했지만, 개념의 남용과 확대는 디아스포라가 가진 잠재력에 손상을 입혔다. 목적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종다양한 정체성들이 서로 교류하고 뒤섞이는 현재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디아스포라는 '고향'으로 통칭되는 특정 정체성으로의 지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차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념적 지표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Encountering Difference*가 크레올화를 중심 범주로 끌어들인 것은 이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4. *Encountering Difference*

*Encountering Difference*는 사회 정체성 형성, 디아스포라, 크레올화라는 세 가지 중심 개념을 놓고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들은 "정치적 동원의 중심축이 계급 정치에서 정체성 정치로 옮겨간" 상황에 주목하면서, "민족, 인종, 젠더, 종교 등에 기반한 수많은 공동체들이 막 수면 위로 부상하는 여러 다른 목소리들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 사회 정체성에 주목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회적 세계는 "순수성, 동질성, 영속성, 한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 정체성, 경계 형성/변형, 경계 지대, 흐릿함, 불확실성, 혼종성, 혼합"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지구화하는 현실은 문화 간의 접촉과 갈등을 낳았고 이방인들은 멀리서 전해지는 뉴스 속에서가 아니라 이웃에서 마주치는 실제 현실이 되었다. "이데올로기, 시민권, 국민 국가"를 내세워 차이를 없애거나 통합하려고 했던 모더니티의 기획이 그 효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판단이다.[11]

11)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6.

www.kci.go.kr

저자들은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에밀 뒤르켐,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 등 이 분야의 대가들 대부분이 사회적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게오르그 지멜, 조지 허버트 미드, C. H. 쿨리 등 정체성을 사유한 학자들의 지적 기원을 그린다.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개념을 제시한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 연구의 초점을 개인들이 수행하도록 요청받는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로 옮겨 놓아 여러 사회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연구자다. 피터 L. 버거와 토마스 루크먼의 연구는 '재현, 상상, 사회적 행위가 현실 그 자체를 구성, 파괴, 재구성'할 수 있다는 반(反) 본질주의적인 사회구성주의의 시초가 되었다. 이제 집단 정체성의 범주는 의문시되었으며, '국민(nation)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선언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12)]

이들은 사회 정체성의 다섯 형태를 이렇게 서술한다. 1. 하위 국가(Sub-national) 2. 국가(National) 3. 디아스포라(Diasporic) 4. 크레올화(Creolized) 5.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 이 다섯 형태는 1. 씨족, 부족, 민족, 지역 혹은 언어 집단과 같은 하위 국가적 실체에 대해 느끼는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원시적인 충성심의 재확인. 2. 소련 해체, 발칸반도 분열, 최근의 테러 사건들, 현재의 국제 금융과 이주 사태에 대한 반발 등에서 잘 드러나는 국민주의의 부활. 3. 디아스포라 정체성, 그리고 세계 종교(예컨대 보편적 성격을 갖는 이슬람 공동체를 뜻하는 움마, 혹은 국제적인 가톨릭 신앙)와 세계적 언어 집단(이를테면 프랑코포니)과 같은 초국가 정체성의 재등장. 4. 크레올화, 혼종화 과정을 거쳐 다른 집단과 연결되거나 혼합. 5. 모든 특수성을 뛰어넘어 인류의 특질, 즉 세계시민주의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보편 정신으로의 발전 등으로 요약된

12)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7.

www.kci.go.kr

다. 이 다섯 가지 사회 정체성이 현재의 세계 집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인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이 책의 입장이다.

한 인류라는 이상을 내세워 여타 사회 범주들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므로 가장 보편성을 갖는 사회적 정체성 형태인 세계시민주의는 "국민국가 모델을 뛰어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사회 과학의 반본질주의 전환에 대응하고, 뒤엉킨 여러 소속과 정체성들을 대표하는 용어"일 수 있다.[13] 언뜻 보기에 세계시민주의적 정체성은 사회들의 융합과 혼합에 주목해 공존의 역사적 경험과 가능성을 탐사해보겠다는 이들의 기획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을 낮추어본다. 첫째, 세계시민주의는 지식인이나 정치권이 이끄는 상향식 국가주도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둘째, 세계시민주의는 휴머니즘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규범적인 태도를 암시한다는 점. 셋째, 보편성이 없는 사회적 정체성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생존한다는 점. 저자들은 휴머니즘이 차이를 감추고 억압하면서 타자를 지배하려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 개념을 주요한 축으로 내세운다.

크레올화는 민족, 언어, 문화의 지속적 혼합을 가리킨다. 크레올화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건너왔거나 물려받은 문화에서 몇몇 요소들을 선택하고 원래의 문화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 다음, 창조적으로 융합해 기존의 형식을 압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변형을 선보이므로, 크레올화는 '지금 그리고 여기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언제나 과거가 기준이 되는 디아스포라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크레올화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이해하는 시각

13)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12.

www.kci.go.kr

도 존재한다. 그러나 크레올화를 폭넓게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카보베르데, 시에라리온, 니카라과,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카리브해의 섬들과 카리브해 변경 연안, 레위니옹, 모리셔스, 세이셸,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처럼 다양한 나라들에 크레올 사회가 존재하며, 브라질, 남아프리카, 미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나아가 스웨덴의 사회인류학자 울프 하네즈는 크레올화가 특정 국가나 조건에서만 나타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는 모두 "크레올 세계"에 살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프랑스어권 카리브해에서 제기된 크레올리테(créolité; creoleness)[14]처럼 크레올화를 제3의 가치로 내세우는 주장도 있으나, 에두아르 글리상처럼 크레올화는 모호성, 불연속성, 다양성, 일시성으로 가득한 끝없는 지옥이라고 보는 급진적인 주장도 있다.[15]

이 책에서는 특히 크레올화가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입장에 주목한다. "다양성과 국제적 이동성이 예전에는 같은 색깔만을 강요했던 지배 문화를 뒤흔들거나 전복"하기 때문에, "문화가 더 이상은 예전처럼 경계를 갖거나 자율적이지 않다는 관점, 그리고 복합적이고 불균형한 끊임 없는 흐름이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체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신빙성을 얻는다는 주장이다.[16]

이 이론적 모색에 근거해 저자들은 문화적 차이의 출발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한다. 서로 낯선 종족들 간의 초기 접촉을 상세히 살펴보고, 문화적 경계가 어떻게 상상, 구성, 위반되는지를 논한 후, 교역과 탐사, 열대 지방의 플랜테이션, 금융과 서비스의 세계화로 이어지는 변화의

14) 1980년대에 프랑스어권 카리브해에서 제기된 문학 운동, 이론. 네그리튀르 운동이 '흑인성'을 주요 가치로 내거는 것에 반발해 언어, 문화의 혼종이 특징인 크레올 자체의 가치를 앞세웠다.

15)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p.15-17.

16)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p.16.

www.kci.go.kr

역사적 변천 과정을 논한다. 섬, 플랜테이션, 항구 그리고 초-다양성 도시(super-diverse city)들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적 관행,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하는 주요 장소가 되면서 크레올화된 공간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러 현장 조사를 활용하면서 언어, 음악, 축제, 음식, 춤 등의 여러 문화적 접촉과 융합이 정체성에 있어서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촉발시켰다는 관찰이 이어진다.

이 책의 의의는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각축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 제시를 디아스포라/크레올화의 프리즘을 통해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다른 유산을 지닌 채 같은 공간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의 감수성을 만들어 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오래된 정체성과 집단 기억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문화 형식과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가 그 주요 문제의식이다.

"디아스포라는 많은 것을 약속했으나 거의 실행한 바 없는 단어들 중 하나이다."[17]라는 말에서 엿보이듯이, 디아스포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유용한 도구이면서 그 실천적 측면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분석 범주였다. 크레올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듯하다. 크레올화는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어 차이를 무화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 용어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실천적 통로도 열려 있다. 무엇보다도 크레올화는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긍정적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역사적 경험에서 출발한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귀속성과 크레올화가 지

17) 비린더 S. 칼라 외,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정영주 옮김, 에코, 2013, 21쪽.

www.kci.go.kr

니는 창조성의 결합이 현실의 지난함과 미래의 희망을 조화시키는 개념적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 개념, 이론이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시기에 탈근대, 탈식민, 탈영토의 서사들이 부상하고 부딪히는 교차로의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충돌과 이산과 혼종의 서사들을 이해하는 지반을 제공했다면, 저자들은 크레올화와 디아스포라를 겹쳐 보면서 차이를 억압하지 않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여기에서 새로운 서사들의 가능성을 조명하려고 한다. 저자들의 표현처럼, 디아스포라와 크레올화가 행복하게 결합하는 지점, 크레오스포라(creospora)는 출구 없는 목적론과 정체성의 해체를 모두 지양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비상을 상상하게 하는 유용한 잣대로서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 *Encountering Difference*, Polity Press, 2016.

2. 논문 및 단행본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속원, 2016.

비린더 S. 칼라 외,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정영주 옮김, 에코, 2013.

임경규 외, 『디아스포라 지형학』, 앨피, 2016.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앨피, 2016.

Floya Anthias, "Evaluating diaspora: beyond ethnicity", *Sociology* 32(3), 1998, pp.557-580.

Robin Cohen, *Grobal Diaspora*, Routledge, 2008.

Roger Brubaker, "The diaspora's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p.1-19.

Stuart Hall, "Living with difference: Stuart Hall in conversation with Bill Schwarz", *Soundings: A Journal of Politics and Culture* 37, 2007, pp.148-158.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Diaspora* 1(1), 1991, pp.83-99.

www.kci.go.kr

Abstract

Encountering Difference in Popular Narrative
- Robin Cohen & Olivia Sheringham's *Encountering Difference*

Choe, Yeong-Seok(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Robin Cohen and Olivia Sheringham's book *Encountering Difference*, which explores ways to avoid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religions and encourage coexistence regardless of differences. The diaspora concept notes the possibility of escaping from existing identities, but it also has limits regarding attribution and regression. Cohen and Sheringham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aspora discussion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creolization, which is a sense of 'now and here' and makes a creative transformation, unlike the diaspora concept, which is based in the past. Creolization is not only consolidating or separating conflicting identities, but also respecting differences and creating new alternatives. When the diaspora and creolization concepts are at the center of theoretical explorations, an alternative to identity conflicts can be created.

(Key Words: differences, coexistence, social identity, diaspora, creolization)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

www.kci.go.kr